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예산 대폭 확대

젊은 작가들 산실로 거듭난다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가 젊은 작가들의 산실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창작스튜디오는 지난 199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지만 연간 예산이 800여만원에 그쳐 지역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립미술관이 예산을 5천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입주작가들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국작가 교환 입주 등 프로그램 준비 “오픈 스튜디오展·전담 매니저 필요”

◇취꼬리 예산 전기로 내면 끝

지난해 광주시립미술관의 양산동·팔각정 스튜디오 예산 850만원 가운데 500만원은 전기·수도 요금이었다. 나머지는 강남로 분관에서 각각 한차례씩 단계를 여는데 필요한 플랜카드 등을 제작하는데 쓰였다.

이렇다 보니 말만 창작스튜디오일 뿐 입주작가들을 위한 지원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 같은 열악한 예산은 다른 스튜디오와 크게 비교된다.

창작스튜디오 2곳을 운영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관련 예산이 연간 9억9천만원에 이른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현대미술관은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인전, 포트폴리오 제작방법 지도 등 입주작가들에게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해주고 있다. 의재미술관 창작스튜디오는 한 해 예산이 7억원(문화관광부 지원)이다.

하지만 광주시립미술관의 경우 예산이 부족해 작가 지원 프로그램은 아예 꿈도 못 꾸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외국 스튜디오와의 국제작가 교류도 지금까지 단 1명에 불과하다.

창작스튜디오의 공간도 열악하긴 마찬가지. 양산동 모 아파트(14평)와 중



광주시립미술관 팔각정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들이 지난달 강남로 분관에서 열었던 ‘팔각정 창작스튜디오’전 모습.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외공인 팔각정 스튜디오 매점을 개조하다보니 작가 1인당 작업실이 협소해 설치작품이나 대형작품을 하는 작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2기 입주 작가인 오창록씨는 “천장 높이가 2m 남짓해 대작을 작업할 수 없고, 환기 시설이 없어 먼지 가득한 곳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2006년 문을 연 서울시립미술관 난지창작스튜디오의 천장 높이는 4m. 주변 환경이 조용해 작가들이 창작에 매진할 수 있고, 주거와 작업 공간이 잘 갖춰져 있다.

지난해 제2기 입주 작가 17명을 선정하는데 380여명이 지원을 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장기적인 대책 마련해야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라는 타이틀은 입주 당시 미술관으로부터 객관적인 ‘검증’을 받기 때문에 젊은 작가들에게는 공모전 수상 경력 이상으로 미술계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국립현대미술관의 고양스튜디오, 창동스튜디오 등은 프로그램에 듀케이터와 전담 매니저들이 작가들의 전시회를 지원하고, 작품 프레젠테이션 등을 돕고 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장소 제공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젊은 작가들의 세계 진출을 돕는 등용문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립미술관은 올해 예산을 5천만원으로 늘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부터 매년 입주작가 2명을 타이완의 대표적인 예술가 레지던스인 타이베이 아티스트 빌리지(Taipei Artist Village)와 교환 입주시키기로 했다.

또 이들의 전시회를 지원하고, 컬렉터와 큐레이터를 초청해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오픈스튜디오’전도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문화현장 답사, 입주작가 프레젠테이션 제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산동에 입주했던 한 작가는 “스튜디오가 제 기능을 하기위해선 장기적으로 전용 건물을 지어야 한다”면서 “동시에 전담 매니저가 입주 작가들의 해외 마케팅을 돕는 시스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모텔 하우스야, 갤러리아”

전시회·각종 문화행사...아파트 견본주택 예술공간 탈바꿈

“모텔 하우스야, 갤러리아?”

단순히 견본주택만 홍보하던 아파트 모델하우스들이 갤러리를 마련해 전시회를 여는 등 지역의 새로운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아파트 매매에만 집중하고, 영업이 끝난 뒤 빈 공간으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던 모델하우스가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금호건설이 광주에 건설중인 ‘갤러리 303 아파트’의 서구 치평동 모델하우스에 갤러리 공간이 마련됐다. 금호건설은 모델하우스 일부를 갤러리로 만들어 오는 3월31일까지 광주출신 서양화가 윤희재씨의 추상 작품 25점을 전시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문을 연 서구 광천동 대우건설 ‘피오레 하우스 갤러리’는 대표적인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지상 4층 규모로

마련된 ‘피오레 하우스 갤러리’의 1층 100㎡ 공간에서는 전시회는 물론 각종 문화행사도 함께 열고 있다.

개관 첫 전시로 지난해 강진 청자문화제와 청자를 알리기 위한 ‘강진 청자문화 유네스코’ 전시회를 열었다. 강진에서 직접 청자를 굽고 있는 장인들과 작가들의 작품 100여점이 선보였고 주부들과 학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올해에도 다양한 기획전과 전시회를 기획중이며,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또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무료 대관해 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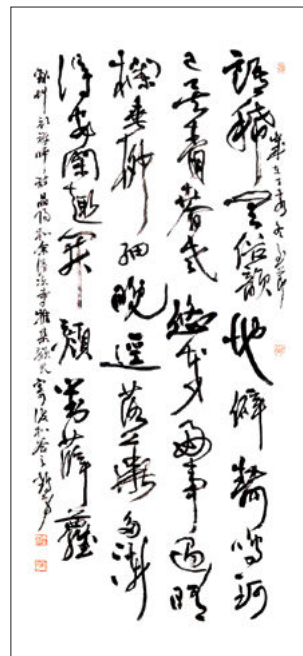
이 밖에도 영무 예담을 주택전시관에서도 지난해 장현우, 정상삼, 박준선, 이용철씨 등 지역 작가 공동전을 마련했고, 매주 2차례 문화교실을 열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최근 금호건설의 ‘갤러리 303 아파트’ 모델 하우스에 꾸민 전시회 모습.

한·중·일 서예의 진수 보러 오세요

26일~3월3일 서울서 국제서예가협회 한국본부 창립전



이동홍 작 ‘초의선사 시’

한·중·일 3국 서예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대규모 서예전이 열린다. 국제서예가협회 한국본부(회장 이돈홍)는 26일~3월3일까지 ‘한국본부창립’전을 서울시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본부 회원 140여명이 전서, 행서, 초서, 예서, 한글 등 다양한 서체의 작품 180여 점을 선보인다.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이들 작가의 대표작이 전시회 폭포처럼 시원스런 글씨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화정체’라는 독특한 조형미와 예술성을 갖춘 글씨로 40여년 서예 외길을 걷고 있는 이돈홍 회장의 작품도 전시된다. 담양출신인 이 회장은 특유의 막힘없이 꿈틀거리는 행서로 초의선사의 시를 화선지에 담았다.

또 광주에서 활동하는 홍동의, 오명섭, 정광주, 임춘식, 강덕원, 최돈삼 등 30여명의 지역 서예가들도 전시에 참여했다.

이돈홍 회장은 “국내 서예의 현수조를 짚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이며, 한국 서예가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마음을 다스리는 예술인 서예 보급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제 교류전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62-228-580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문진기금 지원 대상 사업 확정

문예진흥사업 257건·무대공연 18건 7억 지원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장 오건택·이하 광주문진위)가 25일 2008년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이하 문진기금)과 무대공연제작지원사업(이하 무대공연사업) 지원 대상자를 최종 발표했다.

모두 4억 8천만원이 지원된 문진기금의 경우 전체 지원액 546건 가운데 일반 지원(2억7천150만원) 208건, 집중지원(30건(1억7천7천만원), 신진작가 창작지원(4천400만원) 19건 등 모두 257건이 선정됐다. 412건이 신청해 모두 207건이 선정됐던 지난해(총 규모 4억 4천만원)에 비해 선정률은 47%로 2% 감소했다.

또 올해 처음 광주문진위 사업이 이관된 무대공연사업에는 극단 토박이의 ‘홀랄라 아저씨의 오두막’을 비롯, 연극(6

천500만원), 음악(5천100만원), 무용(4천만원), 국악(3천940만원), 다원예술(4천300만원) 등 5개 분야에서 18건이 선정돼 2억3천840만원이 지원됐다.

2008 문진기금 지원작 선정의 경우 지난해보다 신청 건수가 늘어 배분에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소액 지원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나눠먹기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일반 지원

의 경우 205건 중 100만원 지원사업이 143건에 달했고 300만원 이상 지원사업은 4건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170건 중 100만원 지원 사업은 72건, 300만원 이상 지원 건수는 13건이었다.

올해 확충된 4천여만원의 예산을 대부분 투입한 집중지원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지원 금액이 1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광주예총의 광주예술문화회 등 협회 차원의 연례 행사에만 1천만원이

지원됐고 대부분의 작품이 500만~700만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특히 최하위 금액인 500만원을 지원받은 사업이 21건이나 돼 집중지원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그밖에 다른 지역과 달리 해마다 반복돼 문진기금 등의 누진 분배도 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문진위 오건택 위원장은 “지원단체가 100여개 이상 늘어 지원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며 “예술단체들을 위해 2009년 문진기금과 무대사업의 배분 작업은 올 12월까지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 결과는 문진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381-22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vies 인기영화 즐겨보는 시간 보내세요

Happy Time 영화안내

<p>메가박스 구.런던역사거리 ☎예매1544-0600</p> <p>1관 추격자-디지털 (18세) 최고급관 2관 데스노트 : 새로운 시작 (12세) 3관 더게임 (15세) / 오페라:비밀의계단 (15세) 4관 3시 10분 투유마 (15세) / 주노 (12세) 5관 추격자 (18세) 6관 스파이더워커의비밀 (전세) 7관 6년째 연애중 (12세) 8관 원스어폰어타임 (12세) / 점퍼 (15세) 9관 점퍼 (15세)</p> <p>평점 무료평점 행사 종료했습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p>	<p>엔터 시네마 총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p> <p>1관 점퍼 (15세) 2관 마지막 선물 (15세) 3관 원스어폰어타임 (12세) 4관 더 게임 (15세) 5관 6년째 연애중 (15세) 6관 대한이,민국씨 (15세) 7관 추격자 (18세)</p> <p>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 국내-옥외 주차장 300대 * * 은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p>	<p>컬럼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삼부영원과 아트시어) 해남점 (무역회관앞편)</p> <p>1관 데스노트 : 새로운 시작 (12세) 2관 6년째 연애중 (15세) / 원스어폰어타임 (12세) 3관 대한이,민국씨 (15세) 4관 추격자 (18세) 5관 주노 (12세) 6관 스파이더워커의비밀(전세) / 원스어폰어타임(전세) 7관 점퍼 (15세) / 오페라:비밀의계단 (15세) 8관 3:10 투유마 (15세) 9관 어른멘트 (15세) 10관 점퍼 (15세)</p> <p>* 호남 최대 주차장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1588-7941 클라우드해킹(10만) 절친한 상영중 성명연결 배급 (1인용 2인)~1인</p>	<p>씨너스 전대 북구보전소 건너편 ☎ 511-1000</p> <p>1관 오페라:비밀의계단 (12세) 1관 추격자(18세) 2관 어른멘트 (15세) 3관 데스노트 L (15세) 4관 주노 (12세) 5관 6년째 연애중 (15세) 5관 원스어폰어타임 (12세) 6관 점퍼 (15세) 7관 추격자 (18세)</p> <p>*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1544-0070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 세너스북사 사무(오전9시~오후8시)</p>	<p>무등극장 총장로 1가 ☎ 232-9106</p> <p>1관 3:10 투유마 (15세) 2관 대한이,민국씨 (15세) 3관 점퍼 (15세) 4관 데스노트 L (15세) 5관 추격자 (18세) 6관 주노 (12세) 7관 6년째 연애중 (15세) / 오페라:비밀의계단 (15세) 8관 더게임 (15세) 9관 원스어폰어타임 (12세)</p> <p>* 리바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 평점스 제안을 위한 전용구 마련 * * 편의점의 기능 *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p>	<p>제일 시네마 총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p> <p>1관 추격자 (18세) 2관 데스노트 L (15세) 3관 점퍼 (15세) 4관 주노 (12세) 5관 6년째 연애중 (15세) 6관 원스어폰어타임 (15세)</p> <p>* 무료주차 3시간 (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p>
---	---	---	---	---	---